



한국 최초의 위성발사장 '나로우주센터'가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끝자락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주 주권'의 상징이자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메카가 될 '나로우주센터'는 발사대 시스템제작을 제외한 모든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로, 오는 2008년 10월께 100kg급 소형 과학기술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만 남았다

통제동 등 13개 건물 완공...공정률 98% 이달부터 로켓발사대 터파기공사 들어가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끝자락에 들어선 한국 최초의 위성 발사장 '나로우주센터'는 요즘 설렘으로 가득하다. 발사 통제동과 로켓 추적동 등 위성과 로켓발사에 필요한 13개 건물이 최근 완공된데 이어, 이달부터는 최고 핵심시설인 로켓 발사대를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6일 '나로우주센터'는 발사대 터파기 공사에 열중하고 있는 굴착기와 대형 트럭 등 10여 대의 중장비가 내는 굉음, 그리고 숙박동 완공에 맞춰 때마다 대전에서 이사해 온 직원 30여 명의 분주함이 겹쳐 부산한 모습이었다.

말끔히 포장된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세워진 우주체험관과 발사체 종합조립동 등에는 시험가동에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들이 속속 반입되고 있었으며, 한국 우주항공의 메카를 둘러보려는 각종 기관·단체의 시찰 행렬도 잇따랐다.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은 "각종 시설동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발사대 시스템 제작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2008년

10월이면 우리가 개발한 위성이 우리의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가 될 '나로우주센터'가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3월 현재 나로우주센터의 토목공사 공정률은 95%, 그리고 발사대 시스템을 제외한 건축공사 공정률은 98%에 이른다.

지난 2003년 8월 기공식을 가진 이후 3천억여 원이 투입된 대역사가 4년여 만에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우주센터 내 최고 핵심시설로, 러시아의 기술제휴로 만들어질 발사대 시스템 역시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이 국내 제작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제작작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산 중턱을 깎아 만든 1만5천여 평 규모의 발사장에 발사대가 세워지는 것을 끝으로 2008년 6월께 나로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이 된다. 또 4개월 후인 10월께 사상 최초로 국내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위성을 발사할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된다.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국내 우주센터에서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진정한 '우주 주권'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곳에서 발사될 100kg급의 과학기술위성 2호는 벌써 제작이 완료돼 발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나로우주센터는 발사대 시스템을 비롯해 발사 통제동, 위성시험동, 발사체 종합조립동, 고체 모터동, 광학장비동, 우주체험관(교육홍보관), 추진기관 시험동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변 마복산에는 우주센터 주위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상관측소가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발사된 로켓과 위성의 비행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추적레이더와 원격자료 수신장치를 갖춘 제주추적소도 지난해 말 남제주군 표선면에 들어서 시험가동 중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中영사사무소 23일 문연다

비자 발급 등 호남지역 對中 청구 역할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 중국 영사사무를 총괄하는 중국 영사사무소가 오는 23일 광주에 문을 연다. 광주 중국영사사무소는 서울 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에 이어 국내 중국 공관으로는 3번째이며, 광주에 들어서는 최초의 외국 공관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중국 영사사무소는 앞으로 운영 성과에 따라 영사관으로 승격될 예정이어서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의 대 중국 청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회의도시 지정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

고 있는 광주시는 영사사무소 개설로 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중국과의 관광 및 경제 교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전남·북 등 호남권과 제주도가 중국 내 3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다 광주~상하이 정기 항공노선이 취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8일 "광주시와 전남·북, 제주도 등 4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공자학원(중국 교

육부가 광주에 설립한 중국어·중국 문화 교육기관) 3층에서 중국 영사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중국 영사사무소는 비자 발급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6월 말에 남구 월산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광주 영사사무소에서의 비자 발급은 이때부터 가능해진다.

영사사무소가 개설되면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 1주일에서 3~4일로 줄어들며, 호남지역과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중국 방문객들이 서울 중국대사관과 부산 중국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느라 지급했던 70억원(1년 기준)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2 엑스포 여수에서"

오늘부터 사이클 릴레이 서명운동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의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열기 확산을 위한 사이클 릴레이 홍보 행사가 19일부터 26일까지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열린다. <특별기고 19면>

광주일보에는 전남도와 함께 오는 4월 9일부터 실시되는 세계박람회 사

무국(BIE) 현지 실사를 앞두고 전남 22개 시·군 순회 사이클 릴레이 홍보 행사를 전개한다. 이에 따라 19일 오전 10시 무안군 삼정면 남악리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100만인 서명운동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 발대식이 열린다.

전남생활체육협의회와 전남자전거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 참가자들

은 전남도청 앞을 출발해 26일까지 40대의 사이클을 타고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서명을 겸한 릴레이 홍보 행사를 갖는다.

첫날 목포~신안~영암~해남을 순회하는 릴레이 홍보단은 20일 진도~완도~강진~장흥을 거쳐 21일 보성~고흥~순천~화순에 들러 박람회 유치 열망을 전한다. 이어 22일에는 나주~무안~함평~영광에 이어 23일 장성~담양~곡성~구례를 방문한다. 순회홍보단은 주말과 휴일인 24~25일에는 도내 유명 관광지에서 축제를 찾아 박람회 유치홍보활동을 벌인 후 26일 최종 목적지인 여수에 닿게 된다. /박정기기자 unipark@

社告

퍼펙트 論述

광주일보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교과서 자회사인 (주)푸른1318과 공동으로 눈송이 교육 프로그램 '퍼펙트 눈송이'를 운영합니다.

주요 대학들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통합교과형 눈송이교과를 본격 도입합니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서울에 비해 일선학교에서의 눈송이교육 노후화가 부쩍한 지방의 경우 서울과의 학습능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사의 이번 눈송이교육 프로그램은 이같은 격차를 없애고, 나아가 국내 정

상급 눈송이교육 서비스를 독자여러분 가정에 제공하기 위해 오랜 준비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퍼펙트 눈송이'는 푸른 1318 눈송이연구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따라 매주 주제를 정해 지면에 실습니다. 또한 실전 예제 풀이와 해설기사 게재, 푸른1318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해설강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광주일보사는 이의 눈송이 및 입시정보 설명회 개최, 전국 눈송이모의고사도 함께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찾아갑니다...www.purun1318.com서 동영상 강의도

유형별 장학금 5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세상을 열거하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76%
피부 시간을 뛰어넘는
심경김

IOPE